

## 36

## 도피성

여호수아 20장, 신명기 19:1~13, 민수기 35장

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.

도피성이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성입니다.

하지만 사람을 죽인 아무나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

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, 죽인 사람은 재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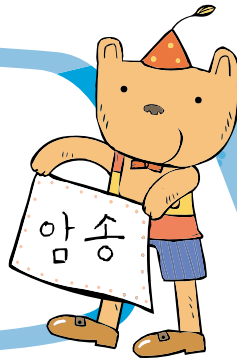
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 사람을 안으로 들인 후,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보호하여 줍니다.

얼마 후, 그 사람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도피성에 살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.



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 
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
(요한복음 14:6)



36

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 
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.

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양쪽에 세 개씩,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.

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.

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 넓으며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여기저기 있어  
서,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 찾아가기 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

이 도피성은 마치 예수님과 같습니다.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사  
는 인간들에게 도피성이 되셨습니다.

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으며, 예수님 안에서 보호  
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.



# 오늘의 공부

## 도피성에 가요

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의 일입니다.



어느 날, 두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.



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도끼에서 빠져 날아갔습니다.



그런데,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.



죽은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.

나무꾼이 도망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

.....

.....

도피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?

.....

.....

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 
(민수기 35:11)



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

# 오늘의 공부

##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

1.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인가요?

2. 예수님께서서는 튼튼한 성과 같아서 마귀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.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?

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(시편 16:1)



3. 다음은 찬송가 384장의 가사입니다.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찬송을 배우며 다음 빈칸을 채워 보세요.

1. 내 주는    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라

2.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      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만드시 이기리로다

#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

구원받은 태영이와 영철이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

그러나 두 사람은 그 일에 대해 다르게 행동했습니다.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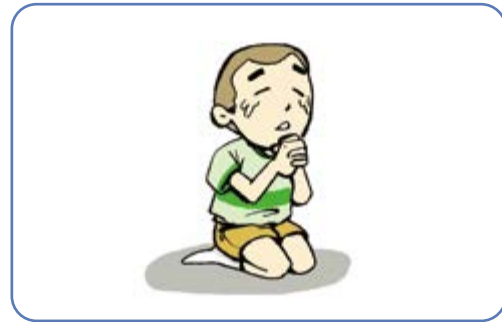
태영이네 반의 몸집 큰 친구가 태영이를 자꾸 괴롭혔습니다.



영철이네 반의 몸집 큰 친구가 영철이를 자꾸 괴롭혔습니다.



태영이는 형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괴롭힌 친구를 혼내 주었습니다.



영철이는 기도했습니다.  
“예수님, 제 친구가 저를 괴롭혀요.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. 도와주세요!”



태영이의 형에게 맞은 친구는 더 힘이 센 다른 형을 데리고 왔습니다. 태영이와 태영이의 형은 그 형에게 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. 많이 슬펐습니다.



얼마 후, 영철이를 괴롭히던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. 영철이는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보호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.

#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

태영이가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?

---

---

영철이의 문제가 해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?

---

---

예수님께 기도해서 자신이 보호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쓰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이야기 해 보세요.

---

---

---

---

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(시편 62:8)

부모님  
난

선생님  
난